

가계 대출 '뇌관' 제거한다

李 대통령, 서민생활 부담 대책 지지 대출 자금 만기·거치 기간 연장 유도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진 채무자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늘려주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의 경우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고 저금리 대출로 환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TV로 생중계된 '대

통령과의 대화'에서 "가계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가계부채가 600조나 되고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며 "가계부채를 정식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분들을 연장을 한다든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경기부진과 금리상승으로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짐에 따라 만기연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6월 말 현재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660조3천억원으로 전반기에 비해 약 20조원이 늘었다.

가구당으로는 약 4천만원의 빚을 지

고 있는 것으로 5년 전인 2001년 6월 말(약 2천만 원)에 비해 두 배가 커진 규모다. 여기에 대출 금리마저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계의 이자 상환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다. 7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7.12%로 전월에 비해 0.19%포인트 높아졌다.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뒷걸음질을 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 가계의 채무 부담능력은 크게 악화됐다. 가계의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작년 말 현재 1.48배로 1년 전 1.43배에 비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경기침체와 금리상승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을 연장해주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의 고위 관계자는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이 금리상승으로 원리금을 갚기 힘들어질 경우

15년 혹은 20년 만기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끝나면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대출을 새로 일으켜 거치기간을 연장해주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부터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리금 분할상환에 들어가는 대출 고객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주택대출이 올해 18조2천억원에서 내년 37조7천억원으로 급증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은행에서 1억원을 연 7.2%, 15년 만기로 대출했을 경우 3년 거치기간 중에는 매달 60만원의 이자만 내면 됐지만 거치기간이 끝나면 12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쳐 평균 103만19천원을 내야 한다.

유가, 100달러 밑으로

두바이유 5개월만에 ... 물가 급등세 진정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5개월 만에 배럴당 100달러선이 붕괴되면서 경제안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은 물가급등을 진정시키면서 침체에 빠진 내수 경기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속되면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유가상승 요인으로는 허리케인과 중동 정세 불안,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등이 있지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치훈 수석연구원은 "원유시장의 투기자금은 작년 2, 3월 수준까지 줄어 확실한 하락추세에 접어들었다"며 "내년에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 선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유가하락, 경기회복 선순환의 출발점 = 국제유가가 고점 대비 30% 급락했지만 여전히 1년 전에 비해서는 40% 높은 수준으로 고유가 상황이 해소됐다고 진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급등과 경상수지 악화 등으로 우리 경제를 위협했지만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어 위험도는 약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가가 내리면 교역조건 개선으로 경상수지 적자 폭이 줄고 원·달러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면서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어디 일자리 없나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08 대한민국 취업박람회'가 개막된 가운데 행사장이 수많은 취업 준비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8월 취업자 15만명 증가 그쳐

6개월째 20만명 밑돌아 ... 실업률 3.1%

8월 취업자 증가수가 다시 15만명 선에 그치는 등 고용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는 2천361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만9천명(0.7%) 증가했다. 이는 7월(15만3천명)에 비해서는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정부 목표인 20만명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째 20만명대에 머무른 뒤 3월 18만4천명으로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어 4월 19만1천명, 5월 18만1천명, 6월 14만7천명, 7월 15만3천명, 8월 15만9천명 등으로 6개월째 20만명을 밑돌고 있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15~19세(-1만4천명), 20~29세(-10만1천명), 30~39세(-2만4천명) 등에서 감소세였고 이외 연령층에선 증가했다. 특히 50~59세는 18만1천명 늘어나 전 연령대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0만4천명)에서 늘어났지만, 도소매·음식숙박업(-5만명), 농림어업(-3만5천명), 제조업(-3만3천명), 건설업(-2만7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7천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줄었다.

임금근로자는 1천610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만1천명(1.4%) 증가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같은 기간 6만2천명(-0.8%) 감소한 751만4천명이

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작년 동월에 비해 34만4천명(3.9%) 늘어났지만 임시근로자는 7만4천명(-1.5%), 일용근로자는 4만8천명(-2.3%) 각각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06만8천명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 13만6천명(2.8%) 증가했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천778만4천명으로 5만7천명(-0.3%) 감소했다.

8월 고용률은 59.6%로 작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3.1%로 작년 동월과 같았고, 청년 실업률은 0.4%포인트 상승한 7.1%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인구는 2천43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만7천명(0.7%) 증가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지역 중소기업 대부분 금융기관 서비스 '불만'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체들은 금융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적지않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가 지역내 271개 중소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지원서비스'를 평가한 결과, 만족도(100점 만점)는 60.4점에 그쳤다.

항목별로는 '대출금리 인상'이 가장 낮은 53.7점을 기록했고 '대출담보 요구'(56.8점), '대출한도 축소'(58.7점) 등 순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반면 친절도(73.8점), 대출커미션(72.3점)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응답업체들은 은행 거래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대출금리'(22.3%), '신용대출'(20.2%), '대출금액'(14.2%) 순으로 꼽았다.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 기업대출 절반으로 '뚝'

8월중 4조원 전담비 1조8천억 ↓

시중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지난 달 기업대출 증가액은 3조9천억원을 기록, 7월 8조6천억원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이 전달의 5조5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급감했으며 대기업 대출도 3조1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으로 줄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수신은 15조6천억원이 늘어나 전달의 6천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수신이 급증한 것은 월말 휴일로 결제자금이 다음달로 이월되면서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늘어난 데다 특권취급 및 대리인상으로 정기

예금에도 6조7천억원 가량의 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 대출 증가액은 3조9천억원을 기록, 7월 8조6천억원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이 전달의 5조5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급감했으며 대기업 대출도 3조1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으로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7월 2조5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으로 축소됐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휴가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1조2천억원이 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가 뜸하면서 2조4천원에서 1조원으로 줄었다.

9월 위기 ... 결국 '설'로 끝나나

외국인 채권 만기 상환 순조 ... 금융시장 안정

국내 금융시장을 공포에 떨게 했던 9월 신용대란설이 결국 '설(說)'로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최근 이들 간 외국인의 대규모 채권 만기상환이 순조롭게 이뤄지며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6천868억원(6천668억원 국제와 200억원 통안채 포함) 규모 채권의 만기 상환에 이어 이날 만기가 도래한 외국인 보유 국제 4조9천959억원 어치가 전액 상환됐다. 이번엔 상환된 자금은 통상 1~2일 뒤 국내 재무투자 여부를 알 수 있으나, 과거 사례로 볼 때 대부분 1개월 안에 재무자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용위기관리도 급등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도 이날 채권시장 안정과 함께 소비자들이 상승률이 둔화돼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는 관측 속에 전날보다 4.90원 떨어진 1,095.50원으로 마감했다.

■ 귀성·귀경길 알아두면 좋을 무료보험 활용법

가족끼리 운전대 잡을때 '임시 운전자 특약' 가입 배터리 충전·타이어 교체·급유 등 무료 서비스도

추석 명절이면 고속도로는 귀성·귀경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명절에는 보통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줄지만 한편 사고가 났다 하면 부상자가 많은 게 특징이다.

귀성·귀경길에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보험 활용법을 정리했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통상 운전자를 부부 한정, 가족 한정 등으로 제한해 가입한다. 그래서 친지들과 어울려 차로 고향에 갈 경우 이들에게 운전대를 맡겼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는다.

이럴 때 유용한 게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임시 운전자 특약)이다. 2만원가량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1~2주간 누가 운전하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자신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들이든 종합보험에서 상대방의 인적 피해, 물적 피해(차량 훼손)를 보상하고 자기가 다쳤을 때도 보상해준다.

뺑소니 사고나 보험에 들지 않은 차에 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보장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사망 때에는 2천만~1억원, 부상 때에는 최고 2천만원이 나온다.

비상시 보험사들의 긴급출동 서비스도 유용하다. 이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배터리 충전, 펌크 난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 전자탑승권제도

내달부터 도입

이르면 내달부터 수화물이 없는 승객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자 항공탑승권을 발급받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출국심사를 받게 된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스웨스트항공 등 19개 항공사와 e-탑승권제도를 이르면 10월부터 도입키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하나휴먼링크	[광주신세계백화점]멤버스리뷰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9/11	011-1796-4814
☎신안중공업	형강류 지자체구 경력직	초대졸/경력4년	회사내규	09/12	062-717-5521
☎풍일산업	설비 공무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9/12	062-941-7891
☎참커뮤니케이션	각각있는 카피라이터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9/12	062-611-7017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입학사정관	대졸/경력무관	4000~5000	09/12	062-530-1037
☎윌이즈	바보사람 물류센터 발주 및 상품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3	062-717-5036
☎한양에스엔씨	해외영업/경리,회계직 정규 사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9/15	062-382-1311
☎대한생명보험	생명보험 컨설턴트 신입 및 경력직	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9/15	062-383-0494
☎순천농협동조합	문화센터 운영실무자 경력직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9/15	061-720-8222
☎신세계푸드	[전국]주니어영양사 및 식재료인(출/판매/조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6	02-3397-6055
☎현대산업	품질관리 정규직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9/16	062-953-0981
☎무진시스템	전기#8228 ; 전자제어 설계직 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8	062-952-0287
☎HRN	SK텔레콤 CRM상담원 및 114고객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9/19	062-529-267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